

癸未使行時の 南玉과 那波師曾*

金 聲 振**

차 례

- | | |
|--------------------|---------------------|
| I. 問題의 提起 | III. 南玉과 那波師曾의 同流意識 |
| II. 南玉과 那波師曾의 知音之交 | IV. 마무리 |

I. 問題의 提起

1763년에 源家治의 關白襲職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癸未使行은 조선후기의 12차례 通信使行¹⁾ 가운데 에도까지를 왕복한 마지막 사행이었다. 이

* 이 논문은 한국18세기학회 2005년 봄학술대회(2005.5.14)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조선후기의 통신사에 한정해서 朝鮮通信使라 칭하기도 하나, 朝鮮을 빼고 그냥 通信使라고 칭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여말선초에는 일본으로 가는 사신을 日本通信使 또는 그냥 通信使라 부르는 것이 통례였고, 임란 후 국교가 재개된 뒤에도 흔히 '朝鮮通信使'라 칭해지는 사신에 대해 '日本通信使'라 칭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日本에 보내는 사신을 日本通信使나 日本國通信使 또는 通信使로 부르는 것이 고려말 이후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일반적 흐름이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의 幕府에서 파견되어온 사신의 경우에는 대개 日本國王使라고 칭하였으나, 通信使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朝鮮이나 日本을 빼고 通信使라고만 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李炳赫 編, 『麗末鮮初 漢文

다음의 辛未使行은 對馬島에서의 易地交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역시 교빙은 新井白石의 견해를 이어받은 中井積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도 하거니와, 재미사행에서 불거진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양국 지식인의 반성적 기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都訓導 崔天宗이 對馬島 傳語官에게 살해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최천종의 살해 사건은 사건발생 25년 후인 1789년에 오오사카에서 「칸진칸몬테구다노하지마리」(韓人漢文手管始)라는 이름의 歌舞伎로 初演된 후 근세에 까지 계속 상연될 정도로 세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中井積善의 역시교빙론은 그의 『草茅危言』에 실려있는 바와 같이 시문창화시 조선 문사가 보여준 교만한 태도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²⁾, 그의 역시교빙론이 제안된 시점이 「칸진칸몬테구다노하지마리」가 상연된 1789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가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최천종이 살해된 것은 통신사가 에도에서 귀로에 올라 오오사카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인데, 통신사일행은 사건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오오사카성에서 28일을 머무르면서도 일본 인과의 창화를 일체 거절하였다. 하지만 창화를 거절하는 대신 筆談을 통한 의견교환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본 논문에 인용된 『萍遇錄』도 이때에 기록된 필담 중의 하나이다.

재미사행에서는 그 어느 사행보다도 시문창화와 필담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현전하는 필담창화의 기록도 많다.³⁾ 남옥은 그의 사행록인 『日觀記』의 「唱酬諸人」에 그가 일본에 체류하면서 시문을 창수하거나 필담을 주고받은 사람 500여인의 이름과 號, 字, 이전 통신사행과의 唱和 여부 등을 기록해 두었다. 那波師

學의 再照明』, 『麗末鮮初 韓日兩國 通信使의 不傳行錄에 대하여』(태학사, 2003) 참고.

2)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이화여대 출판부, 1996) 353-356쪽 참고.

3) 필자가 李元植의 「朝鮮通信使의 訪日と筆談唱和」(『韓』109輯, 東京, 韓國研究院, 1988)에 실려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31종의 기록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는 최근 정민 교수에 의해 보고된 『東槎餘談』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에 현전하는 것으로 밝혀진 필담창화기록은 32종에 달하는 셈이다. 참고, 「南玉의 生涯와 日本에서의 筆談唱和」, 『韓國漢文學研究』第19輯, 韓國漢文學會, 1996.과 鄭珉,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第32輯, 韓國漢文學會, 2003. 참조.

曾도 이들 唱酬諸人 중의 한 사람이다.

『日觀記』에는 창수제인 뿐 아니라 이들과 필담창화를 나눈 날짜와 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필담창화의 실제 시문은 『日觀唱酬』에 실려 있다. 『일관기』는 일반적으로 『海行摠載』를 대표한다고 칭해지는 조엄의 『海槎日記』나 신유한의 『海遊錄』보다도 양적으로도 훨씬 방대할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문학적이다. 남옥이 復命했을 때 영조는 남옥이 일본에서 문명을 날렸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가 일본에서 지은 시는 몇 수이며, 홍세태나 신유한에 비해 어떠했는가를 묻기도 하였다. 영조의 하문에 대해 조엄은 “신유한은 시가 홍세태에 못 미치고 홍세태는 文이 신유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남옥은 시와 문 모두 홍세태와 신유한에 견줄 만합니다.”라고 답하였다.⁴⁾ 그뿐만 아니라 남옥의 마지막 관직인 수안군수라는 직책이 그의 文才를 높이 평가한 국왕의 명령으로 특별히 제수된 것임을 보더라도, 남옥의 문재에 대한 당시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쪽의 시각이긴 하지만, 那波師曾의 동생인 奥田元繼는 ‘이번 갑신사행 480여인 가운데 못놀림이 물흐르는 듯하면서도 말이 되고 간간이 奇妙한 데가 있어 평할 만한 사람은 오직 秋月(남옥) 한 사람뿐이다.’⁵⁾라 하여 남옥을 일행 중 최고의 문사로 치고 있으며, 山根淸은 ‘신묘사행 이후로는 남옥과 성대중이 역시 巨擘이라고 평하고 있다.’⁶⁾

이처럼 한일 양국 공히 이구동성으로 남옥을 계미사행에서의 최고의 문사로 평한 데 비해, 일본측 문사 중에서는 남옥의 경우처럼 뚜렷하게 부각되었던 사람이 없다. 다만 남옥이 “魯堂(那波師曾의 호)은 일본의 으뜸가는 문장이며 으뜸가는 辯論”⁷⁾, “오랑캐의 문사 가운데 오직 那波師曾만이 鐵中の 錚錚이다.”⁸⁾

4) 南重, 『耐通訓大夫行遂安郡守公遺事』, ‘維翰詩不及世泰 世泰文不及維翰 南某當與申洪高下矣’ 이와는 달리 조엄의 『海槎日記』 『筵話』에는 ‘詩와 文에 다 장치가 있으며, 갑자기 지었으니 다 잘 지어냈습니다’라는 말만 인용되어 있다.

5) 奥田元繼, 『兩好餘話』 『跋』, ‘今茲甲申聘使同行四百八十餘人 其中筆翰如流 語言立成 間有奇妙可評者 唯秋月一學士而已’, 那波利貞의 『明和元年の朝鮮國修好通信使團の渡來と我國の學者文人との翰墨上に於ける應酬唱和の一例に就きて』(『朝鮮學報』 42輯, 朝鮮學會, 1967)에서 재인용.

6) 山根淸, 『長門癸甲問槎序』, ‘辛卯幕中李東郭已超乘矣 爾後 此行南秋月成龍淵 亦爲巨擘矣’

7) 奥田元繼의 『兩好餘話』, ‘魯堂日本第一文章 第一辯論’ 那波利貞의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라고 하면서 那波師曾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자는 남옥이 魯堂 앞에서 한 말이므로 다소 의례적인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후자는 최천중 살해사건이 마무리된 후 오오사카를 떠나 우리의 배로 옮겨타서 귀국하는 도중에 지은 시구에 대한 自註이므로 남옥의 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엄의 『해사일기』와 원중거의 『和國志』 등에도 那波師曾을 칭찬한 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남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의 문장과 학문에 대한 총론에서 잠깐 언급하였을 뿐, 별다른 관심이나 칭찬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성대중은 那波師曾을 일러 “魯堂의 해박한 지식과 奇激한 의론은 제가 일본으로 온 후 처음 보았습니다”⁹⁾라 하였는데, 이는 주로 那波師曾의 문학적 역량보다는 학문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옥은 무엇 때문에 유달리 那波師曾을 높이 평가한 것일까? 물론 오오사카에서 에도까지의 왕복 노정을 함께하면서 생긴 인간적인 친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노정은 다른 학사들도 동행했고 남옥이 那波師曾과 필담창화를 할 때에도 거의 성대중, 원중거, 김인겸 등의 3학사와 동석을 하였는데 남옥만이 왜 ‘제일’이니 ‘유일’이니 하는 말을 붙일 정도로 那波師曾을 칭찬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II. 南玉과 那波師曾의 知音之交

남옥이 那波師曾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것은 통신사 일행이 오오사카에 머무르고 있었던 1764년 1월 25일의 일이다. 남옥은 那波師曾과의 첫 대면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다.

西京州藩授經인 那波師曾은 字가 孝卿이요 號가 魯堂이다. 모습은 볼품이 없었지만 문학에 뛰어나고 經史에 통달했다. 字가 仲達인 의사 富野義胤과

8) 南玉, 『日觀詩草』下, 「阻風兵庫用唐人韻」의 自註, ‘蠻土 惟那波師曾 爲鐵中之錚’
9) 草中, 『萍遇錄』, “魯堂 博淹之識 奇激之論 僕東來始見”

함께 維天長老의 행차에 書記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이는 대개 우리와 함께 첫릿길을 왕래하면서 시를 唱和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자는 것이니, 그 정성과 뜻이 가상하다.¹⁰⁾

維天長老는 교토의 相國寺에 속한 승려로 이름이 承瞻인데, 통신사 일행을 護行하여 오오사카에서 에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接伴僧이었다. 那波師曾은 남옥 일행과의 필담창화를 위해 일부러 維天長老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那波師曾과 富野義胤은 이때부터 최천종의 피살사건으로 인해 객사 출입이 통제될 때까지 거의 날마다 객사로 찾아와 남옥등과 필담창화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곤 했다. 那波師曾이 이때의 필담창화를 모아 엮은 책이 『東遊篇』이며, 여기에는 이들이 주고받은 161수의 시와 尺牘 10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남옥과 성대중, 원중거가 이 책에 서문을 써주었다.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는 제술관인 남옥과 3서기가 주로 담당하였고, 필담에는 이들 외에 역관이나 醫士(=醫師)가 동석하기도 했다. 일본 문사 가운데는 통신사가 渡日할 때마다 잇달아 시문창화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남옥 일행이 나고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객사인 性高院에 찾아와 창화를 한 源君山(君山은 號: 筆者註)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이다. 源君山은 이름이 雲으로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기해사행(1719)부터 창화를 했다고 하며 사람됨이 자못 예스럽고 성실하였으며 詩筆도 볼 만했던 것 같다.¹¹⁾ 이 자리에는 源雲 외에도 그의 아들인 源武와 손자인 源彦도 참여하였다. 이밖에 八木光賢, 岡田宜生과 그의 동생인 岡田惟周, 加藤文中, 膝茂, 千村鼎臣과 그의 아들인 千村知亮과 次子 千村諸成 三子인 千村春友, 淺井明善, 岡章民, 森岡自厚, 田應時, 太資憲, 膝照峰, 源元孚 등도 창화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源君山の 가족 아니면 그의 門徒였다.¹²⁾

10) 南玉, 『日觀記』秋 甲申年 1月 26日條, “西京州藩授經那波師曾 字孝卿 號魯堂 貌不揚 而文學長博通經史 與醫士富野義胤 字仲達 俱託維天長老之行 爲書記 蓋欲與吾輩 同往返千里 極酬唱談燕之娛 其誠與志可嘉”

11) 앞의 책 2月 3日條, “源君山 名雲 年過七十 自己亥唱和 爲人頗古實 詩筆亦可觀” 여기에는 그가 기해사행시부터 창화를 했다고 되어 있으나 ‘唱酬諸人’에는 ‘辛卯以後唱和’라고 되어 있다.

12) 앞과 같은 곳.

이때의 시문창화 장면을 그린 것이 『諸學士 性高院の書院に朝鮮人と詩文贈答の図』¹³⁾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양국간 문인들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따로따로 앉아 시문창화에 응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양국간 문인들이 시문을 창화하거나 필담을 나눌 때 취했던 일반적인 자세였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문사의 시문창화나 필담을 기록한 책은 대개가 이런저런 작품이나 기록을 편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통신사 가운데 어느 특정인과 만 창수한 시문, 또는 필담 기록을 전하고 있는 예는 드물다. 이와 달리 那波師曾의 『東遊錄』은 那波師曾이 제술관과 3학사, 그리고 정사의 수종인인 趙東觀과 종사관의 수종인인 洪善輔, 의원인 李佐國 등과 필담창화를 나눈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魯堂 역시 대체로 周宏, 周遵 등과 함께 객사에 찾아와 필담창화를 나누었지만, 魯堂은 그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을 추려내어 『東遊篇』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那波師曾은 꽤 박식했던 모양이다. 남옥은 源君山등과의 필담창화가 있기 하루 전에 周宏, 周遵 등과 함께 객사를 찾아온 那波師曾과 필담창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창화시와 필담에는 간간이 博雅한 것이 많다고 평하면서 이런 사람이 오랑캐의 나라에서 성장하는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¹⁴⁾ 那波師曾은 남옥 일행에게 일본측 문사들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하였으며, 혹은 유력자들로부터 부탁받은 서문이나 평을 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전 통신사행의 필담창화기록을 빌려주기도 하고, 혹은 책을 사다 주기도 했다. 요컨대 那波師曾은 남옥 일행이 일본문화를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那波師曾의 『東遊錄』과 비슷한 성격의 책이 『日觀唱酬』이다. 조엄의 『해사일기』의 경우 酬唱錄이란 항목을 두어 창화시를 사행록 안에 포함하는 방식을 취

13) 「尾張名所図繪」의 性高院項, 朴春日의 「朝鮮通信使史話」(雄山閣, 東京, 1992) 119쪽에서 재인용. 그림의 위에 君山이題한 「三世唱和引」이 쓰여져 있다. 그 가운데 「右 秋月把筆」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남옥은 이 책에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日觀唱酬』 下卷 「題源君山三世唱和卷」) 여기에서 三世唱和라 한 것은 源君山이 그의 아들인 源武와 손자인 源彦과 함께 참여한 것을 뜻한다.

14) 남옥의 앞의 책 甲申年 2月 2日條, “魯堂周宏周遵來話 魯堂筆舌 間多博雅可聞者 亦有生長蠻夷之恨”

하고 있는데, 남옥은 『일관기』와는 별도로 일본문사와의 창화시문만을 모아 『일관창수』를 편록한 것이다. 『일관창수』에 실려 있는 창화시문은 현전하는 2책(3책 중 上冊 결본)¹⁵⁾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770여편에 이른다. 결본인 上冊에 350여편이 실려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일관창수』가 완질이었다면 아마도 1,100여편 정도에 달했을 것이다. 『해사일기』 ‘수창록’에 실려있는 시가 창화시를 전부 포함해서 300여수였음을 감안할 때, 『일관창수』는 현전하고 있는 770여편은 엄청난 분량인 것이다. 『해사일기』처럼 『일관기』 안에 수창록이라는 이름 하에 『일관창수』와 『日觀詩草』의 시문을 다 포함한다면 현전하는 것만으로도 1,900여편이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방대한 분량의 필담창화 기록이 되는 것이다.¹⁶⁾

남옥과 魯堂은 서로 이러한 만남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듯하다. 魯堂은 남옥과 시에 대한 필담을 나누던 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陸游의 『劍南集』을 남옥에게 주기도 했는데, 남옥은 이 책을 받고 ‘일생동안 바다 동쪽을 되돌아보며 기억하리라.’¹⁷⁾고 읊은 바 있다.

이때의 전후 사정을 魯堂은 「題劍南詩鈔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
- 15) 『日觀唱酬』 中卷은 1764년 1월 13일에 備前州 牛窓의 客舍에서 井潛의 百韻律에 화답한 「次井潛四明一百韻」에서 시작되고 있다. 『日觀記』의 기록에 따르면, 南玉은 부산을 떠나 佐須浦에 정박한 10월 6일부터 한달쯤 지난 1763년 11월 3일에 酇菴長老가 증정한 律詩 1수, 絶句 1수에 화답하는 것을 시작으로 거의 날마다 시문을 창수하거나 필담을 주고 받고 있다. 따라서 『日觀記』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따져볼 때, 『日觀唱酬』의 上卷은 1763년 11월 3일에 酇菴長老의 律詩 1수, 絶句 1수에 화답한 시에서부터 1764년 1월 12일에 豊後州 記室인 柴寬猛의 시에 화답한 시까지를 수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6) 『日觀唱酬』에는 魯堂의 시에 대해 대한 22수의 화운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那波師曾의 『東遊篇』에 실린 남옥의 화운시는 33수이다. 南玉이 那波師曾을 처음 접한 것이 1764년 1월 24일이고 현전하는 『日觀唱酬』 中卷은 1월 13일의 창화시로부터 시작되므로 결본인 『日觀唱酬』 上卷에는 那波師曾과의 창화시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東遊篇』에 실려있는 남옥과 那波師曾간의 창화시 33수 가운데 최소한 11수가 『日觀唱酬』에는 빠져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남옥이 那波師曾과 주고받은 필담창화 가운데 적지않은 시문이 散逸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17) 『日觀唱酬』 下卷, 「謝魯堂贈劍南詩鈔」, ‘一生回憶海天東’

갑신년 봄에 내가 사신들을 陪行하게 되어 學士인 秋月 南先生과 수천 리를 동행하게 되었는데 마음으로 사귀이 매우 깊었다. 이런 때문에 꽃을 앞에 두고 등불 아래에서 겨우 한 번이라도 소일할 곳을 만나게 되면 붓과 벼루를 가지고 탁자를 마주하고 나란히 앉아 千古의 인물을 논하고 詩賦에 대해 한담을 나누었다. 하루는 放翁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여행보따리를 열어 지니고 있던 『劔南詩鈔』를 꺼내 선생에게 드렸다. 그 책이 돌아갈 곳을 얻게 된 것이 기뻐다.¹⁸⁾

시간만 나면 마주 앉아 역사와 고금의 인물, 시문 등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남옥이 陸游의 詩를 근체시의 지침으로 권하자 陸游를 가장 애호했던 魯堂이 동지를 만난 듯한 기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劔南詩鈔』를 남옥에게 건넸던 것이다. 이에 남옥은 “선물을 주시는 뜻은 재화나 물건에 있지 않으리니 감사하고 공경스럽습니다. 다만 魯堂이 老陸을 열심히 보아 만년의 지침으로 삼길 바란 것인데 이제 저에게 돌려 주시니, 魯堂이 詩燈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¹⁹⁾라 말하였다. 그러자 魯堂은 자신에게 또 한 권의 『劔南詩鈔』가 있다고 말하면서 남옥을 위로 하였다. 남옥은 이 책을 받고는 “끝이 없는 푸른 바다 위로 / 밝은 달이 오락가락하네. / 나의 시를 그대가 읊조리고 / 나는 그대의 책을 펼치네.”²⁰⁾라는 내용의 시를 짓기도 했다.

이처럼 남옥과 那波師曾은 필담창화를 통해 서로를 문학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推獎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천중 피살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양국문사의 접촉이 일본 막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문창화나 필담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남옥 역시 일본문사와 창화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뜻으로 붓을 꺾어 버렸다. 그러던 중 4월 29일에 남옥은 書樓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魯堂이 승려들에게 막혀서 객사로 들어오지 못

18) 『兩好餘話』 下卷, “歲甲申歲 余陪星輅之後塵 與學士秋月南先生 同行數千里 心交特深 是故花前燈下 僅一逢消遣之地 則以筆硯相隨 對榻連席 尙論千古 閒談詩賦 一日言及放翁 因開旅笥中所携劔南詩鈔 以贈焉 喜其得所歸也” 那波利貞의 전계 논문에서 재인용.

19) 앞과 같은 곳, “相贈之意 非貨非物 可感可敬 但欲魯堂熟觀老陸 以爲晚年指南 今以歸我 恐魯堂失一詩燈”

20) 앞과 같은 곳, 「書贈魯堂」, “茫茫碧海 明月往來 我詩子誦 子書我開”

하는 것을 보게 된다. 魯堂은 5월 4일에도 객사에 찾아오지만, 周宏과 周邊의 제지를 받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알게 된 남옥이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로 적어 보낸 것이 『東遊篇』에 실려있는 「附那波孝卿」이다.

그대가 갔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대가 왔는데도 볼 수가 없군요. 어제는 周宏이 그대가 왔노라고 전하기에 간절하게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으나 잘 되지 않아, 그저 蕉中과 마주보면서 탄식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곧 정이 담긴 편지와 岡田氏의 詩卷과 다른 詩卷의 시를 두 편 받을 수 있었으니 사람은 가깝고도 먼 것인가 봅니다. 내일이면 우리 배가 서쪽으로 갈 것입니다. 周宏에게 간청을 해서 오늘 밤에 데리고 올 것을 허락받았는데, 그것이 食言이 아니라면 아마도 밤중에 몇 시간 정도는 정담을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일 모래 언덕에서 먼발치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²¹⁾

魯堂과 仲達과는 달리 최천종의 피살사건에도 불구하고 蕉中과 周宏은 객사에 출입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周宏은 那波師曾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와의 만남을 통제 내지 주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周宏은 붓과 먹을 팔기도 하였으나 전혀 석별의 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남옥등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여 魯堂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魯堂과 仲達이 객사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때의 상황에 대해 남옥이 “魯堂과 仲達이 비로소 올 수 있었으나 감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것이 마치 놀란 새가 안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²²⁾라고 쓴 것이다. 남옥은 蕉中과 마주보면서 탄식할 따름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蕉中의 경우에는 최천종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객사에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필담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기록한 것이 『萍遇錄』으로, 『萍遇錄』에 실려있는 다음 기록은 남옥이 魯堂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작별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1) 那波師曾, 『東遊篇』, 面32 「附那波孝卿」, “君去而不至 君來而不見 昨者宏傳君至 苦要導來而不得 則只與蕉中相對嘆咤而已 卽承情牘 并岡田氏詩卷 及他卷兩詩 人邇且遐 明日則我帆西矣 懇諸宏也 得今夜導來之樂 如其不食 則庶得半宵之款 否則明日沙岸一睇而已...”

22) 『日觀記』冬 卷9 甲申年 5月 5日條, “魯堂仲達 始得來 不敢久坐 如警鳥之不定”

秋月이 말했다.

“魯堂은 해박한 지식과 강개한 뜻을 지니고 있으니 참으로 한 명의 기이한 선비인지라 서로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로막혀서 얼굴을 대하면서 작별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만약 며칠간 강을 타고 내려올 수 있다면 혹시 한번이라도 손을 잡고 헤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두 禪師에게 돌아가는 사자가 있으면 꼭 그에게 급히 알려 주십시오.”

내가 말했다.

“어제 밤에 仲達과 같이 배를 타게 되었기에 魯堂의 일을 물으니, ‘바로 당신이 동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오지 않은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 듣기로는 조금 아프다고 하니 그래서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²³⁾

이렇듯이 남옥과 魯堂은 서로 얼굴이라도 맞대고 두 손을 잡고 작별하려고 갖은 애를 썼던 것이다. 『萍遇錄』에는 최천종의 피살사건 이후 객사 안팎의 다소 긴장되기도 스산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남옥과 성대중 등이 魯堂의 소식을 묻거나 面對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만나게 된 노당과 이내 작별하게 되는 장면을 남옥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섯 사람이 혹은 작은 붓으로, 혹은 彩墨으로 전별하고 눈물을 닦아내며 작별하였다. 강둑에 이르러 魯堂과 그 동생 奧田元繼를 보니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므로, 또 수레에서 내려 잠시 이야기했다. 禁倭가 성을 내며 두 사람을 책망하자 두 사람이 크게 놀라 金鑊船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아까의 여섯 사람과 함께 모래 독에 한참을 서서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보고 있다가 배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야 그만 두었다. 비록 언어로써 통할 수 없었으나 수천 리를 동행하고 4, 5개월을 唱酬하였으니 정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²⁴⁾

23) 『萍遇錄』上卷, “秋月曰 魯堂瞻博之識 激慨之志 誠一奇士 相得甚驩 不幸陷阻 將失面別 如能趣日間沿流而來 或可一握而罷 如兩師有歸使 則須飛報渠也 余曰 昨夜與中達同舟矣 問魯堂事 則曰 正亦相約同行 待之不來 聞有少恙 所以不果”

24) 앞과 같은 곳 5월 6日條, “六人 或以小筆 或以彩墨相驢 揮淚而別 至江岸 見魯堂及其弟奧田元繼 佇立相待 又下輿少輿 禁倭噴責二人 二人大恐 遂下金鑊船 二人與向六人 延佇沙頭 目不轉睛直至 帆影不見而後已 雖不能通語言 數千里同行 四五朔酬話 情不得不深”

차마 헤어지지 못한 채 강변에 우두커니 서서 떠나가는 배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던 魯堂과 마찬가지로, 남옥 또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다. 이렇게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난 流頭日에 남옥은 안부를 묻는 편지를 魯堂에게 보내는데, 그 서두에 “강가에서의 작별은 지금까지도 섭섭합니다. 효고의 배 안에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마음을 담아 스님이 돌아가는 편으로 부쳤는데 과연 받아보셨는지요?”²⁵⁾라는 구절이 있다. 남옥은 이렇게 작별한지 며칠 후 효고 주변의 배 안에서 魯堂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한 달쯤 지난 후에 재차 편지를 보내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것이다.

『東遊篇』에 실려 있는 「舟中閱魯堂與我唱酬錄 悵然有懷 用金三淵槩溪雜詠韻吟寄」²⁶⁾(배 안에서 魯堂과 내가 창수한 기록을 보니 정하게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다. 이에 金三淵의 「槩溪雜詠」의 운을 써서 그 뜻을 부치노라.) 라는 詩題에는 그러한 남옥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의 말미에는 ‘작별할 때 魯堂은 그 나라의 禁制 때문에 말없이 전송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²⁷⁾, 『日觀記』의 6월 3일조에 ‘次三淵望海及槩溪雜吟 賦沮滯之愁’(三淵의 「望海」와 「槩溪雜吟」에 차운하여 뱃길이 막힌 근심을 읊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는 남옥이 노당과 작별한 지 한달 뒤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작별할 때의 魯堂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원중거는 魯堂과 창수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처연해하는 남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겨우 知己의 뜻을 秋月에게 의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귀로에 浪華에 도착하자 또 다시 法吏의 규제로 해서 시를 짓고 얼굴을 대하는 것 모두 막히게 되었으니 객 또한 司敗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홀연히 한 번 작별하자 마침내 구름과 바다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飄風에 이끌려 서쪽으로 나와 고개를 들어 동쪽을 바라보자 대마도에 이르렀더이다.

25) 『奉候那波孝卿靜案』, 那波師曾의 앞의 책 面25, “江上之別 至今不怡 兵庫舟中作一書 託心緣僧之歸 果登案上否”

26) 이는 『日觀詩草』下에 실려있는 「岐島久滯 次槩溪雜詠四十三首」의 일부이다. 남옥은 『東遊錄』에 실려 있는 해당 시 다음에 ‘右二首 屬那波師曾’이라고 명기해 놓고 있다.

27) 앞의 책 面29, “別時 魯堂以邦禁 默默相送”

秋月翁이 작은 詩卷 하나를 꺼내는데, 孝卿이 우리들과 창수한 것을 엮은 것으로 합하여 백여 편이더라.²⁸⁾

원중거가 이 글을 쓴 것은 1764년 6월 14일이니, 오오사카에서 魯堂과 작별한 지 38일 뒤의 일이다. 원중거가 知己를 말한 것은 그만큼 남옥과 那波師曾이 단순히 통신사와 그들을 護從하는 문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학문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동질의식을 느낄 정도로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원중거는 굳이 남옥이 간간이 『東遊篇』을 꺼내보는 것과 ‘託知己於秋月’을 들어 발문을 썼던 것이다. 그리고 남옥 역시 다음날인 6월 15일에 원중거와 마찬가지로 『東遊篇』의 발문을 썼다.²⁹⁾

이처럼 계미사행에서 이루어진 남옥과 魯堂간의 문학적 교류는 통신사의 시문창화와 필담이 단순히 의례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학적 교류로 진전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교류와 那波師曾에 대한 남옥의 호평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Ⅲ. 南玉과 那波師曾의 同流意識

해외에서 이국의 문사와 만나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을 함께하면서 知音之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신의 자격으로 파견되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옥과 那波師曾이 知音之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서로가 상대방에게서 자신과 흡사한 문학적 지향성과 학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동생인 南重이 쓴 「補通訓大夫行遂安郡守公遺事」에 의하면, 이 글이 쓰

28) 元重舉, 「書那波孝卿東遊卷後」, 앞의 책의 「東遊篇跋」 面10, “纔能託知己於秋月 歸到浪華 又因法吏拘制 詩與面俱阻 客亦司敗之俟 忽忽一別 遂成雲海永世之隔 引瓢西出 矯首東望 至馬州 秋月翁 出一小詩卷 蓋孝卿所葺”

29) 남옥이 魯堂의 『東遊篇』에 발문을 썼다는 것은 『일관기』의 6월 15일조에 기록되어 있고, 발문인 「題那波師曾東遊詩卷後」는 『日觀唱酬』 마지막에 실려 있다.

여질 당시까지만 해도 『割胖錄』 1冊, 『溟嶽詩史』 1冊, 『詩集』 2冊, 『文章』 2冊, 『日觀詩草』 2冊, 『日觀唱酬』 3冊, 『日觀記』 4책 등이 남아 있었던 듯하나, 『溟嶽詩史』와 『詩集』, 『文章』 등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다.³⁰⁾ 현전하는 그의 저작물 가운데 사행록과 무관한 것으로는 『宜寧南氏家乘』에 실려있는 「先府君行錄」과 「先妣行錄」 정도이다. 남옥의 문학과 학문 세계는 오직 그의 사행기록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옥은 日本使行을 마치고 복명한 다음해에 賦·表를 잘 지었다 하여 특별히 遂安郡守에 제수되었다. 이밖에 『韓山世稿』에서는 「玉의 科賦는 神出鬼沒하다」³¹⁾ 하였다. 그리고 俞晩柱 역시 남옥의 賦를 당대 제일로 거론하고 있다.³²⁾ 그가 詩보다는 文에 특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문학세계의 전반적 특질은 그의 동생이 쓴 遺事에 비교적 잘 밝혀져 있다.

詩를 지음에는 일찍부터 金昌翁을 좋아했으며 敘情에 뛰어났던 까닭으로 宋·明 이하에 있지 않을 수 없었다. 文을 지음에는 唐宋八家文에 출입이 많았으며 끝맺음이 급했던 까닭으로 秦漢 이하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³³⁾

30) 이 가운데 현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日觀詩草』와 『日觀唱酬』, 『日觀記』 등 3종 뿐이다. 그리고 『日觀唱酬』는 상권이 散逸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日觀記』는 제4책이 결본이며, 제1책의 표지 이면에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에서 발행한 謝狀用紙가 두 장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28년 6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남상학에게서 빌린 책을 돌려보내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927년 6월에 조선사편수회의 稻葉岩吉이 당시 春川府 新北面に 살고 있는 남상학씨를 찾아가 이들 책을 빌려와서 林敬鎬, 金潤喆, 任稷淳 元鼎漢, 全圭洛, 黃周周 등을 시켜 필사하게 하고 澁江桂藏이 교정을 보았는데 이 사본이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소장본이 된 것이고, 그 필사의 모본이 아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책인 듯하다.

31) 『韓山世稿』 卷29 文苑錄 面42-3, “玉之科賦 神出鬼沒”

32) 俞晩柱, 『欽英』, 1782년 2월 27일조. “或言今世之程式 苟不能速則 雖李匡德之表任徵復之策 完寧之詩 南玉之賦 便不可謂文 而不可自以爲能文也 是以魁卷之凌夷 如此在高 何曾有是哉”

33) 南重의 전개문, “爲詩早悅三淵 長於敘情 故不能不在宋明間 爲文 多出八家 急於結局 故不得不置秦漢以下”

요컨대 김창흡의 시세계를 추종했고 서정성 강한 시를 지었으며, 文에 있어서는 唐宋古文의 경향을 띄었다는 것이다. 남옥과 절친한 친구였던 이봉환이 류경창과 함께 남옥의 집에 들러 지은 시에 ‘문장은 바로 宋과 明이 남긴 것을 천착해야지’라는 구절이 있고³⁴⁾, 陸游의 시를 추종했다는 것 등으로 보아 그의 시는 宋詩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옥이 金昌翁과 陸游의 시세계에 침잠해 있었음은 그의 『日觀唱酬』와 『日觀詩草』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관시초』에 실려 있는 시 1,100수 가운데 김창흡의 시에 차운한 것이 13편 154수이고 陸游의 시에 차운한 것이 28편 117수로, 이 두 시인의 시에 차운한 것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두 시인에 경도된 그의 시적 경향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남옥이 김창흡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은 일행들도 알고 있었던 모양으로, 성대중은 那波師曾과 필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옥의 책 상자 안에 『三淵集』이 있으니 구해서 한 번 보라’고 권하기도 하였다.³⁵⁾

다음의 필담 기록은 宋詩風에 경도되었던 남옥의 문학적 지향과 그가 어떻게 해서 那波師曾과 知音之交를 맺게 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魯堂: 중국의 詩格은 唐 이후로 여러 번 변화했는데 明人の 浮靡함은 참으로 또한 싫증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왕왕 이를 배우는 자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다시 白香山과 蘇東坡를 으뜸으로 삼고 간간이 李商隱의 西崑體를 취하여 이를 쓰며 저도 자못 이를 애호합니다. 시는 오직 적당히 字句를 단련한 다음에야 入格할 수 있을 뿐입니다……

秋月: 詩論은 바로요. 하지만 다만 西崑體만을 본뜨면 조직이 纖濃해져서 도리어 大雅의 本意를 잃게 될 것이니 三唐의 草堂詩를 익히 보고 곁들여 香山과 劍南을 취하는 것만 못할 것이요. 이것이 近體의 指南입니다.

魯堂: 참으로 좋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劍南이라면 제가 가장 좋아하니 뒤에 도중에서 좋은 작품을 얻게 되면 보여 주십시오.

秋月: 그렇게 하겠습니다. ³⁶⁾

34) 李鳳煥, 『雨念齋詩鈔』 卷3 「時韞宅同柳景昌賦」, “文章徑窄宋明餘”

35) 『兩好餘話』, “秋月箱中有三淵集 君求一見之”, 那波利貞의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36) 『兩好餘話』 下卷, “中華詩格 唐後累變 明人浮靡 固亦可厭 弊邦人往往有學之者而中華今復宗香山髯蘇 間取義山西崑用之 余頗愛之 詩唯宜煅字煉句而後入格而已……魯堂 詩論正矣 然徒效西崑 組織纖濃 反失大雅之本意 不如且熟看三唐草唐 傍取香山劍南 是近體之指南 秋月 固如高論 而劍南則僕所最愛 他日途中有得高作

魯堂이 李商隱의 西崑體를 자못 좋아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서 자신과 문학적 지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陸游의 『劍南詩鈔』를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이 급속히 가까워졌음은 이미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데, 이 필담을 통해서도 두 사람 공히 陸游의 시에 심취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도 明代의 문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白居易의 시를 선호했다는 점에서도 서로 일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明代 文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남옥과 魯堂의 동류의식을 더욱 공고히 해 준 듯하다. 남옥이 魯堂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1764년 1월 25일에 石川貞을 비롯한 10인의 일본측 문사와 남옥을 비롯한 7인의 조선측 문사가 오오사카의 객사에서 필담창화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기록한 것이 『問槎餘響』이다. 石川貞의 門徒인 伊藤伯守가 『問槎餘響』을 엮은 뒤 魯堂에게 서문을 부탁하는데, 魯堂은 이 서문에서 “오호라, 세상에서 바야흐로 嘉隆의 僞體를 귀히 여기는도다.”³⁷⁾ 라고 탄식한 바 있다.

魯堂이 말한 ‘嘉隆의 僞體’란 明나라의 嘉靖·隆慶 연간에 유명했던 이른바 嘉靖七才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李攀龍과 王世貞이 그 주된 표적이 된다. 李攀龍과 王世貞에 대해서는 한일 문사간의 필담에서 논쟁거리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王·李가 일본 근세유학의 큰 흐름을 형성한 物雙栢의 이른바 徂徠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徂徠學과 ‘嘉隆之僞體’가 어떻게 관련되고 또 이것들에 대한 那波師曾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남옥과 魯堂의 동류의식으로 연결되는가를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이다.

師曾이 『停雲集』과 『徂徠集』을 가져와 보여 주었다. 『停雲集』은 源嶼가 選錄한 일본의 시선이고 『徂徠集』은 곧 物雙栢의 문장으로 그는 이른바 護園이라는 사람이다. 『四書徵』을 지어 주자를 공격하기를 남을 힘이 없을 정도로 했고, 멋대로 편벽되고 음란한 말을 지어내어 일국을 고쳐시켜 그를 따르게 하니 성가와 명망이 그를 앞서는 자가 없었다. 그 문장을 보면 자기

則示之 魯堂 如戒 秋月”

37) 那波師曾, 『問槎餘響序』, 『問槎餘響』上, “嗚呼 世方貴嘉隆之僞體”

무리 중에서 영웅이 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듯 빛나고 辨說이 크고 호방하다. 李滄溟을 얻은 후에 비로소 古經의 修辭와 立言의 의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의 학설을 구해 보니 이치에도 맞지 않고 시 또한 미치지 못한다. 문장 중에는 우리나라를 기롱하고 폄하하는 말이 많다.³⁸⁾

남옥은 徂徠學이 무엇보다도 정주학을 공격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문장도 잘 따져보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시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의 문장이 언뜻 보기에 화려하고 번설이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남옥은 이러한 徂徠學의 문제가 그가 李滄溟의 古文辭를 통해 그 修辭立言을 잘못 받아들인 데서 기인한다 보았다. 또한 남옥은 物雙栢의 문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기롱하고 폄하하는 말이 많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魯堂이 어떤 연유로 남옥에게 『徂徠集』을 가져와 보여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物雙栢에 대해서는 남옥을 비롯한 조선측 문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魯堂이 『徂徠集』을 가져와 보여주기 이전부터 일본 문사들과의 필담에서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옥이 蕉中에게 “魯堂이 나에게 『徂徠集』을 주었는데 가격을 말하지 아니했기에 내가 스스로 그 값을 물어 가격을 알아 백금을 宏僧에게 보내어 魯堂에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스님께서 魯堂을 보게 되면 꼭 이 일을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³⁹⁾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남옥이 魯堂에게 『停雲集』과 『徂徠集』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옥 일행이 藍島에 머무를 때 龜井魯가 永富鳳이 지은 『囊語』를 보여 주었는데, 이에 대한 남옥의 언급을 통해 徂徠에 대한 그의 견해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38) 『日觀記』 秋 甲申年 3月 2日條, “師曾携示停雲集徂徠集 停雲源嶼所選日東詩 徂徠乃物雙栢之文 所謂護園者也 作四書徵攻朱子無餘力 肆爲詖淫之辭 鼓一國而從之 其聲望 莫之先焉 觀其文 非不爲自中之雄 光焰燁然 辨說宏放 而以得李滄溟而後 得古經修辭立言之義云者 求說不得於理 詩又不及 文多譏貶我人之語.”

39) 『萍遇錄』上, “秋月日 魯堂贈我以徂徠集 不言價 我自問 知其價 送白金於宏僧 使之傳魯堂 師見魯堂 須詳致此事”

문장이 策論과 같아 왕왕 깨달아 이해함이 있기는 하나 모두 經義에 어긋난다. 그가 시를 논한 것은 明詩를 唐詩에 들어가는 계단으로 여겨 詩家의 지침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경전을 풀이하는 통로로 삼기도 하였는데, 護園을 통해 비로소 이러한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護園은 곧 物雙栢의 또 다른 호이며, 그가 잘못되고 가소로운 것이 이와 같다. 또한 永富鳳이 스스로 지었다고 하는 시문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고 이치가 무리를 현혹시킬 만한 것도 못되며 物雙栢의 餘論을 주위 엮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龜井魯가 아까운 재주를 지니고서도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져들어 그를 일러 海內的 일인자라고 하니 가소롭고도 애처로운 일이다. 囊語의 서문은 播摩州의 清絢이 지은 것인데 문장이 永富鳳보다 조금 낫다. 이 또한 교토와 오오사카 사이에서 이름난 자인데 모두가 物雙栢의 무리라고 한다.⁴⁰⁾

남옥이 『囊語』의 문장이 經義에 어긋나며 그가 지은 시문이 말도 되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비난의 실질적인 표적은 物雙栢임을 알 수 있다. 物雙栢이 程朱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인데, 그런 때문으로 그의 문도인 永富鳳과 清絢을 비판한 것이며 아울러 永富鳳을 海內的 일인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龜井魯까지도 가소롭고 애처롭다고 한 것이다.

게미사행에서는 한일 양국 문사들이 정주학과 관련하여 몇 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논전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에도에서 조선측 문사들과 太醫 橫田準大가 벌인 필담이다. 赤間關에서 조선측 문사들과 瀧長愷등이 벌인 필담에서도 程朱學 및 徂徠學 등에 대한 논전이 있었다. 전자를 기록한 것이 『兩東鬪語』이고, 후자를 기록한 것이 『長門癸甲問槎』이다. 『兩東鬪語』는 책의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筆鋒을 무기로 한 양국 문사간의 치열한 논전이고, 『長門癸甲問槎』는 말 그대로 통신사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필담이다. 양자 공히 정주학과 徂徠學, 그리고 王·李 문장과 당송문에 대한 공박이 필담의 핵을 이루고 있다.

『兩東鬪語』에서는 橫田準大가 남옥을 지정하여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편지

40) 앞의 책 夏 癸未年 12月 10日條, “文如策論 往往有悟解 而皆背於經義 其論詩 則以明詩爲入唐之楷 不但爲詩家指南 亦爲釋經之門路 自護園始知此義云 護園卽物雙栢之一號 其紕謬可笑如此 且鳳之所自爲詩文 多不成辭 理不足以惑衆 不過掇拾雙栢之餘論 而龜井以可惜之才 迷溺不回 至謂之海內一人 可笑而亦可哀也 囊語序 播摩清絢所作 文稍勝於鳳 亦是西京大阪間噉名者 以皆雙栢之徒云”

로 이들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는데, 横田準大의 질문 마지막 부분과 이에 대한 남옥의 대답은 이러하다.

横田準大: …지금 貴邦은 文辭에 있어 韓·柳 二家만 있습니까? 아니면 李·王을 따라 古文을 익히는 사람도 있습니까? …

南玉: 道學은 程朱를 漢儒에 짝하는 것으로, 문장에 있어서는 李·王을 짝하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이는 物雙栢이 처음으로 내세운 논리입니다. 그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갈 길을 어그러뜨림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시다. 비록 그대의 총명함이 흐릿해져서 스스로 그것이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통렬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무릇 程朱가 나오지 않았다면 孔孟의 道가 어두어졌을 것이고 孔孟의 道가 어두워졌다면 사람과 짐승이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입니다…… 李·王에 이르러서는 鈎棘에 불과하니 그 文辭는 난삽하고 자구는 애써 秦漢을 좇으려 하지만 말세의 杜撰之文이 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⁴¹⁾

언뜻 보기에 양자의 견해는 너무나도 팽팽하게 맞서 있다. 요컨대 横田準大는 조선은 다양성이 결여되어 문학은 오로지 韓愈와 柳宗元 만을 으뜸으로 여기고 학문은 오로지 정주학만을 존숭하고 있지 않느냐고 힐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옥은 物雙栢의 학문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윤리도덕을 망가지게 한다고 하면서 정주학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남옥의 말에 대해 横田準大는 “孔孟의 도가 정주학으로 해서 밝게 된다는 것은 제가 감히 믿을 수 없습니다.”⁴²⁾라며 재반박하고 남옥 역시 横田準大가 徂徠學의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슬프다는 탄식의 말로써 대답을 한다.

赤間關에서의 필담은 일본쪽의 논객이 横田準大에서 瀧長愷로, 그 주된 상대역 또한 남옥에서 원중거로 바뀌었을 뿐, 에도에서의 필담과 비슷한 식으로 이루어진다.

41) 『兩東闊語』下卷 面58, “今也 貴邦之於文辭 唯在韓柳二家歟 或又有因李王而脩古文者歟” “道學則麗程朱於漢儒 文章則配李王於韓柳 此物雙栢招嚆矢之論 其壞人心術 錯人路逕 至此而極矣 雖以君之明泯然 不自思其淪胥 可勝痛哉 夫程朱不出 則孔孟之道晦 孔孟之道晦 則人獸幾乎雜糅矣……至於李王 則不過鈎棘 其辭艱澁 其句力追秦漢 而卒不免爲季世杜撰之文”

42) 앞과 같은 곳, “孔孟之道 從程朱而明 僕不敢信焉”

赤間關에서의 徂徠와 관련된 논란은 먼저 남옥이 운을 떼면서 시작된다. 남옥이 鶴臺에게 徂徠를 뵈고 배웠느냐고 묻자 鶴臺는 자신이 늦게 태어나서 직접 그 문하에서 배울 수는 없었지만 그 제자인 周南을 따라 섬겼다고 말한다. 조금 후에 원증거가 끼어들어 본격적으로 王·李와 徂徠學의 폐단을 공박한다. 원증거는 ‘지금 파도처럼 달리고 물길처럼 치닫는 것은 대개 명나라의 선비인 王·李 의 여폐인데, 이것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곧 物徂徠’라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鶴臺는 ‘이 나라의 학자 가운데 徂徠의 가르침을 遵奉하지 않는 자는 드물며 저 또한 그러하다’고 당당히 맞선다. 그리고는 ‘徂徠가 지은 著書도 읽지 않고서 그 학설을 따져본다면 어찌 그 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자 원증거는 자신들이 江戸에 있을 때에 『徂徠集』을 가지고 와서 이를 보여준 사람이 있어 한 번 펼쳐봤는데 인용하는 것이 모두 王·李의 것으로 병에 든 것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한다.⁴³⁾

鶴臺의 말처럼 일본에서는 어딜 가나 物雙栢과 王·李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일색이었으니, 정주학에 경도되었던 남옥이 物雙栢과 王·李에 함몰되지 않은 듯한 魯堂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혹자는 魯堂이 徂徠學의 기반인 漢魏의 古學을 버리고 오로지 성리학을 제창하게 되고 그의 문인인 西山拙齋가 徂徠學으로부터 주자학으로 전향하게 된 것은 통신사 일행과의 접촉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⁴⁴⁾ 魯堂이 徂徠學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옥 일행이 魯堂을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 일행을 접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성리학을 제창하게 된 것인지는 그 선후 관계는 알 수가 없다.

남옥이 통신사행을 통한 일본관찰의 결산 격으로 『일관기』의 말미에 붙인 「總記」에 ‘文章’조가 있다.

학술은 대저 陸王學을 주로 하며 정주학을 공격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異學을 물리친다 하여 억지로 주자학을 주로 한다고 말하는 자도 간혹 있다. 하지만 朱子를 공격하는 자는 재주있는 이가 많으나 주자학을 주로 하

43) 『長門季甲問槎』下卷의 해당부분 요약.

44) 衣笠安喜, 『近世儒學思想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部, 東京, 1976) 19쪽, 이혜순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는 자는 용렬한 자가 많다. 근세에 物雙栢이 일세를 현혹하고 기치를 세워 무리에게 외쳤는데, 그가 문학에서 거친 것을 깨우치고 교법에서 바른 것을 추하게 한 공과 죄는 모두 으뜸이다. 이는 동진수길에 그 나라에 끼친 것과 같다. 그런데 그 그릇됨을 아는 자는 오직 那波師曾 뿐이다. 문장은 그 나라에 과거가 없으므로 해서 높은 자는 혹 고문에 가깝고 낮은 자는 문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 있어서는 대체로 경술하고 천박한데, 이는 대개 명나라 사람의 문자가 유입된 뒤로 文詞에서 物雙栢을 천착하는 일이 많아서이다.⁴⁵⁾

남옥의 견해로는, 일본의 학문과 문학의 잘잘못은 오로지 정주학을 공격하는 경향과 物雙栢의 무리가 득세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徂徠學의 주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王世貞과 李攀龍의 일본의 문단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 또한 그러하다. 那波師曾은 그의 나이 17세였던 1744년에 교토에 유학하여 岡白駒에게서 漢魏의 古學을 익히는 한편 華音を 배우기도 했던 것 같다. 후에 白駒의 노함을 받고 학문을 바꿔 주자학을 신봉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교토에는 주자학을 강론하는 뛰어난 학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那波師曾은 이내 주자학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那波師曾이 계미사행 당시 접반승이었던 相國寺의 瞻長老에게 부탁하여 스스로 남옥 일행을 陪行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일본에는 조선측 문사들이 오로지 정주학만을 존중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므로, 那波師曾으로서도 자신과 학문적 입장을 같이하는 조선측 문사들과의 만남은 자신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통신사는 언제나 조선의 특산물이었던 인삼과 海東靑 등을 일본에 예단으로 주었다. 『日觀記』의 「贈酬」에 따르면 계미사행의 경우, 駿馬 2필과 海東靑 46마리가 예단으로 일본에 건네졌다. 그런데 이 海東靑과 駿馬는 통신사 일행에 앞서 1763년 12월에 배편으로 오오사카에 도착해 있었던 모양이다. 통신사가 오오사카에 도착한 것은 1764년 1월 21일이었고, 여기에서 5일을 머무르다 교토로 떠났다. 말과 해동청이 한 달 정도를 오오사카에 머무르게 된 셈인데, 이 기

45) 『日觀記』冬「總記」‘文章’，‘學術大抵主陸王 而攻程朱學 以我人之關 強言主朱者或有之 然攻朱子多才俊 主朱子學 多庸下 近世物雙栢 眩惑一世 立幟號衆 其文學之開荒 教法之醜正 功罪俱魁 如秀吉之於其國 知非者 惟那波師曾 文以其無學業也 故高者或近古 卑者多不大理 詩則大體輕淺 蓋自明人文字流入之後 詞致多穿鑿雙栢”

간동안 那波師曾은 馬官인 張世文으로부터 초보적인 조선어를 배웠다고 한다.⁴⁶⁾ 那波師曾은 통신사의 陪行과 필담창화를 위해 적지않은 준비를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那波師曾이 徂徠學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漢魏의 古學을 버리고 주자학으로 침잠하게 된 학문적 방향 선회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大田覃이 ‘계미사행에서 사신들과 친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은 魯堂 밖에 없었다.’⁴⁷⁾고 한 것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남옥에게 있어서는 徂徠學의 잘못을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那波師曾에게 호감이 갈 수 밖에 없었고, 那波師曾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남옥 일행에게서 동류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랑캐의 문사 가운데 오직 那波師曾만이 鐵中の 錚錚’이라는 남옥의 평가 역시 상당부분 이러한 동류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마무리

조선후기의 12차례 통신사행 가운데 에도까지를 왕복한 마지막 사행이기도 했던 계미사행은 조선후기 한문학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통신사행에서의 제술관과 3학사는 당대의 대표적인 문장가를 선발하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서기였던 성대중이나 김인겸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연구되고 문학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옥의 경우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일본 사행록의 대표격인 『해유록』과 『해사일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손색이 없는 그의 『일관기』 또한 오랫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는 작가인 남옥이 어전에서 시와 문 모두 홍세태나 신유한에 견줄 만하다는 평을 받았고 유만주로부터는 당대 제일의 賦 작가로 거론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다소 의아한 일이다. 남옥은 당시에 한일 양국에서 최고의

46) 앞과 같은 곳. 『日觀記』『座目』에는 ‘理馬 張世文 領國馬先去’라고 되어 있다.

47) 大田覃, 『一話一言』, “凡甲申の歳の聘使に親しく交りしものは魯堂にしくはなし”

문사로 일컬어졌는데, 그런 남옥이 일본의 문사 가운데 那波師曾을 지목하여 ‘蠻土 중에서 유일한 鐵中之錚’이라고 극찬한 이유를 밝히고자 함이 본고의 의도였다. 필담창화와 같은 이국인끼리의 문학적 교섭과정을 통해, 당시 우리 문단의 풍향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는 뜻에서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옥과 那波師曾은 주변 인사의 입에 회자될 정도로 知音之交를 나누었다. 이러한 만남이 서로의 문학과 학문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겠는데, 본 발표에서는 아직 이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남옥의 경우에는 현전하는 작품이 거의 사행록과 필담창수의 기록일 뿐 재미사행과 무관한 시문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의 문학세계 변화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那波師曾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그의 학문과 문학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연구의 여력이 여기까지에는 미치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재미사행 당시의 양국 사행록과 필담창수 기록을 중심으로 남옥 일행을 배행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살피는 데 주력하였다.

다음으로 남옥이 那波師曾을 호평한 주된 이유가 양자 사이의 동류의식에 있다고 보아, 그 동류의식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옥이 성대중, 원종거 등과 마찬가지로 정주학 위주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고, 당시 일세를 풍미하던 李攀龍과 王世貞의 문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주학을 공격했던 일본의 徂徠學을 놓고 벌여졌던 한일 양국의 첨예한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재미사행 당시, 조선의 문단은 바야흐로 公安派와 竟陵派의 문학적 세례를 받은 稗史·小品이 성행하려 할 즈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옥과 那波師曾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남옥의 전체 시문 가운데 公安派와 竟陵派의 영향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은 고작 남옥이 귀로에 오오사카를 떠난 후 竟陵派 鍾惺의 시에 차운해 지은 「次鍾伯敬江行俳體十二首」가 있을 뿐이다.

결국 남옥과 那波師曾은 각각 자국 문단의 본류에서 약간 비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양자 공히 그 동안의 연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남옥은 陸游의 『劍南詩抄』에 경도되어 당시 일세를 풍미하

던 明末淸初의 문학을 애써 외면했고, 那波師曾은 徂徠學 일색이었던 당시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서 한 발치 물려서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남옥과 那波師曾이 지니고 있었던 또 다른 형태의 동류의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 南玉, 那波師曾, 癸未使行, 使行錄, 徂徠學, 劔南詩抄, 筆談唱和

참고문헌

• 筆談唱和 記錄

- 『講餘獨覽』, 南宮岳, 刊本, 文泉堂, 1764, 國立中央圖書館本.
- 『鷄壇嚶鳴』, 刊本, 不分卷 1책, 京都大學附屬圖書館本.
- 『東槎唱酬集』, 寫本, 2軸, 國立中央圖書館本.
- 『東遊篇』, 那波師曾, 刊本, 風月莊左衛門, 1764. 日本國會圖書館本.
- 『問槎餘響』, 伊藤維典, 平安書林, 1764, 國立中央圖書館本.
- 『問佩集』, 寫本, 1764, 1책, 日本國立公文書館本.
- 『兩好餘話』, 奧田元繼, 刊本, 2책, 日本國立公文書館本.
- 『長門癸甲問槎』 瀧長愷(鶴臺)等, 刊本, 長門明倫館藏版(1765), 1884년 複刊, 2책, 國立中央圖書館本.
- 『萍遇錄』, 寫本, 2책, 日本國立公文書館, 國立中央圖書館本.

• 使行錄 및 기타 문헌

- 南玉 외, 『宜寧南氏家乘』, 筆寫本, 宜寧南氏門中本.
- 南玉, 『日觀記』,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본.
- 南玉, 『日觀詩草』, 筆寫本, 국사편찬위원회본.
- 南玉, 『日觀唱酬』, 筆寫本, 국사편찬위원회본.
- 俞晚柱, 『欽英』, 筆寫本, 규장각본.
- 李鳳煥, 『雨念齋詩鈔』, 靜嘉堂文庫本,
- 早川純三郎, 『通航一覽』, 國書刊行會, 1912.
- 趙巖, 『海槎日記』, 국역해행총재 84, 민족문화추진회, 1976.

• 論著

- 金聲振, 「南玉의 生涯와 日本에서의 筆談唱和」, 『韓國漢文學研究』 第19輯, 韓國漢文學會, 1996. 273-300쪽.
- , 「麗末鮮初 韓日兩國 通信使의 不傳行錄에 대하여」, 李炳赫 編, 『麗末鮮初 漢文學의 再照明』, 태학사, 2003, 209-230쪽.

- 那波利貞의 「明和元年の朝鮮國修好通信使團の渡來と我國の學者文人との翰墨
上に於ける應酬唱和の一例に就きて」, 『朝鮮學報』 42輯, 朝鮮學會, 1967,
1-48쪽.
- 朴春日, 『朝鮮通信使史話』, 東京 雄山閣, 1992.
- 李元植, 「朝鮮通信使의 訪日と筆談唱和」, 『韓』 109輯, 東京, 韓國研究院, 1988.
3-87쪽.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 출판부, 1996.
- 鄭珉,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第
32輯, 韓國漢文學會, 2003. 87-123쪽.
- 韓泰文,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 , 「이언진의 문학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 제34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97, 41-60쪽.

<Abstract>

Nam-Ok and Napa-Sajeung at the Envoy Travel Period in the Year of Gyemi

Kim, Sung-Jin

This essay is to review the companionship between Nam-Ok(南玉), a literary man in Chosun Dynasty who was dispatched as 'an envoy to Japan in the year of Gyemi'(癸未) and Napa-Sajeung(那波師曾) who was a literary man in Japan. Their companionship was so close as to arose followers' interest. I think this fact is of great help in investigating how our literary trend was in those days. This essay is mainly to review Nam-Ok's literary world. The study on Nam-Ok had not almost been tried yet though he was a member of governmental servant of composing literary works who was chosen as the best writer in that period.

However, his remaining works were 'writings on envoy travels'(使行錄), recordings of 'conversation through writing only'(筆談), so the change of his literary world was difficult to analyze. From this point, I pay attention to his records of 'conversation through writing only' with Japanese writers, by focusing on that this fact may reflect lots of opinions and interests in both countries' literary world and situations.

Nam-ok gave a favorable comment on Napa-Sajeung to recognize him as the best writer in Japanese literary world. So this essay tries to clarify the root of their similarity. The main issue of the above is that Nam-Ok held Jungju-Hak(程朱學)-centered view of the world, like Sung-DaeJung(成大中), Won-JungGeo(元重舉), criticizing the literature of Lee-BanRyong(李攀龍), Wang-SaeJung(王世貞) whose literary influence were overwhelming throughout the country.

This essay examines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broken out due to Jorae-Hak(徂徠學) that had spoken against Jungju-Hak(程朱學). In those days of the 'envoy travel in the year of Gyemi', Chosun's literary world was mainly at the time of paesa(稗史) and sopum(小品) influenced by 'Gongan party'(公安派) and 'Gyungryung party'(竟陵派). Nevertheless, Nam-Ok and Napa-Sajeung didn't express their interests in them. This fact means Nam-Ok(南玉) devoted himself to *Selected Poems of Gumnam*(劍南詩抄), thus not paying atten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end of Ming and the beginning of Ching dynasty'(明末清初文學) which were overwhelming throughout the country. Napa-Sajeung also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Japanese intellectual society exclusively occupied by Jorae-Hak.

In conclusion, Nam-Ok and Napa-Sajeung stood aside from the mainstream of each country's literary world, so that it seems to be the reason why they were not treated in the study of this field. This essay investigates the before and after situation, by focusing on their 'conversation through writing only and their give-and-take of literary works'.(筆談唱和)

Key Words : Nam-Ok, Napa-Sajeung, Envoy to Japan in the year of Gyemi, writings on envoy travels, Jorae-Hak, *Selected Poems of Gumnam*, conversation through writing only and their give-and-take of literary works.